## ㊻ 大韓地誌 대한지지

1906년 / 玄采(현채) / 132면, 106면 / 08.10-01 현81대 1906

대한지지는 1906년(광무 3년)에 1권을 1913년(광무 10년)에 2권를 발간했는데, 구 한국정부의 학부(學部)에서 편찬 간행했다.

1권은 132면으로 총론과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및 경북이 수록되어 있다. 2권은 106면인데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및 함북도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 발문은 백암(白庵), 현채(玄采)와 강진희(姜璡熙) 선생이 썼다. 각 도마다 고을(郡)의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41개 군(郡)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一등 군(郡)은 尙州郡(상주군), 慶州郡(경주군)이고,

二등 군(郡)은 大丘郡(대구군), 星州郡(성주군), 義城郡(의성군), 永川郡(영천군) 및 安東郡(안동군)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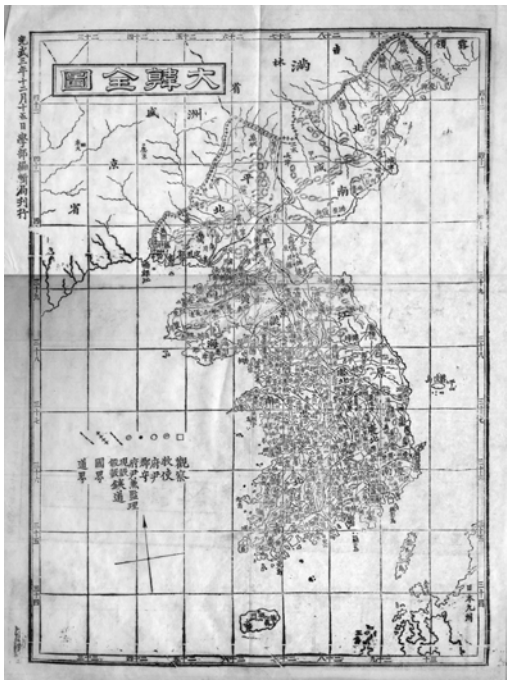
三등 군(郡)은 醴泉郡(예천군), 金泉郡(김천군), 善山郡(선산군) 및 淸道郡(청도군)이고,

四등 군(郡)은 靑松郡(청송군), 仁同郡(인동군), 寧海郡(영해군), 順興郡(순흥군), 漆谷郡(칠곡군), 豊基郡(풍기군), 盈德郡(영덕군), 龍宮郡(용궁군), 河陽郡(하양군), 榮州郡(영주군), 奉化郡(봉화군), 淸河郡(청하군), 長鬐郡

(장기군), 軍威郡(군위군), 義興郡(의흥군), 新寧郡(신영군), 迎日郡(영일군), 禮安郡(예안군), 開寧郡(개령군), 聞慶郡(문경군), 知禮郡(지례군), 咸昌郡(함창군), 英陽郡(영양군), 興海郡(흥해군), 慶山郡(경산군), 玆仁郡(자인군), 比安郡(비안군), 玄風郡(현풍군) 및 高靈郡(고령군)이다.

제일 앞에는 우리나라 전국지도가 있고 각 도마다 지도를 첨가하고 있다. 그런데 1906년이면 이미 모든 분야에 일본의 콧김이 영향을 미칠 때라 그러한지 책머리 첫 줄에 동해를 일본해라 한 것을 보니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단군개국설을 싣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당시 1등군, 2등군 하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인구, 물산(物産) 및 인물 등이 그 잣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일설에는 인구나 물산(경제)보다도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고을이 등수가 높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경북편의 지도를 보면 울릉도는 그려져 있다. 울릉도 주위에 6개의 섬이 그려져 있으나 독도란 표기는 없다.




경상남도편을 보면 수부(首府)는 진주이고 1등군은 진주군 단 하나이며, 2등군이 김해군과 밀양군의 두 군데밖에 없고 동래군이 3등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고성 남쪽에 통제대영이 있는데 이는 선조(宣祖) 임금님이 오셔서 설치한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三道) 수군을 통괄케 하던 곳이란 기록도 보인다.